

제2회 한경연 포럼 : 제1주제

2002년 경제전망과 향후 정책과제

허 찬 국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Tel : 3771-0013, e-mail : huh@keri.org

【 요약 】

내년은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도 큼. 국제적으로 선진각국의 동조화 된 불경기 지속여부와 국내적으로 실시될 총선 및 레임덕 현상 조기발생 우려 등의 요인이 겹친 결과로 국내 경기전망은 특히 불투명함. 두 가지 가상 시나리오가 유력함. 첫째, 미국경제가 상반기 중 가시적 회복기에 접어들면서 우리경제의 반등시점이 내년 중반기 이전으로 앞당겨지는 경우. 두 번째, 세계경제의 동조화 불경기가 지속되고 한국내의 정책실기로 미약한 회복세가 연말로 미루어지는 경우. 최근 조기회복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지수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으나 아직 단정짓기 이른 상황. 정책의 초점은 조기회복 시나리오 하에서는 안정기조로의 전환, 회복 지연 시나리오 하에서는 부양노력지속이 요망됨.

I. 최근 경제 동향과 평가

1. 최근 경제동향

소비, 건설 등 내수 관련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산업생산의 회복 조짐, 설비투자와 수출 감소폭 둔화 등 일부지표 개선 움직임

- 소비와 건설투자 관련지표들 8월 이후 회복세를 지속
 - 7, 8월중 회복세가 주춤하던 도소매판매지수는 8월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9~10월중에는 월평균 6.1%증가(추석시기 이동에 따른 조업일수 변동을 감안하기 위해 9~10월 평균 증가율을 이용)
 - 건설투자지표인 건설기성액도 증가세가 확대되어 9~10월중 평균 15.7%증가
- 산업생산과 설비투자지표는 절대적 수준에서는 여전히 부진하나 추세는 긍정적인 전환 조짐을 보이고 있음.
 - 10월 생산증가율이 마이너스를 보였지만 3/4분기(-1.8%)에 비해 감소폭이 둔화되었을 뿐 아니라 9~10월 평균증가율은 1.8%로 6월 이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
 - 지난 해 11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며 3/4분기중에는 두자리수 감소세를 보였던 설비투자추계(통계청 자료)도 9~10월중에는 감소폭이 한자리수도 크게 둔화
 - 재고증가율도 8월 이후 둔화되어 10월중에는 한자리수(4.9%)에 그침.
- 수출도 큰 폭의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감소폭은 둔화
 - 하반기 들어 20%안팎이던 수출 감소폭이 11월에는 16.3%로 다소 개선
 - 월평균 수출금액도 소폭 증가 추세(3/4분기 118.8억달러 → 11월 125.4억달러)

- 실업률도 2월을 정점으로 전반적인 하락 추세
 - 실업률: 2월 5.0% → 10월 3.1% (1.9%p 감소)
- 4월까지 높은 상승세를 보이던 물가가 5월 이후 안정세를 보임
 - 소비자물가는 5월 5.4%증가율(전년동월비)을 정점으로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9월부터는 3%대의 상승률을 지속

<표 1> 최근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비(%)

| | 2000 | 2001 | | | | | | | | |
|--------------|-------|-------|-------|-------|-------|-------|-------|-------|-------|-------|
| | 연간 | 1/4 | 2/4 | 3/4 | 7월 | 8월 | 9월 | 10월 | 9~10월 | 11월 |
| GDP성장률(국민계정) | 8.8 | 3.7 | 2.7 | 1.8 | | | | | | |
| (계절조정) | (8.8) | (0.3) | (0.4) | (1.2) | | | | | | |
| 산업생산 | 16.8 | 5.0 | 1.6 | -1.8 | -5.7 | -4.4 | 5.1 | -1.3 | 1.8 | |
| 채고 | 16.2 | 15.2 | 14.9 | 11.5 | 15.7 | 14.7 | 11.5 | 4.9 | 4.9 | |
| 민간소비(국민계정) | 7.1 | 0.9 | 2.9 | 3.4 | | | | | | |
| 도소매판매 | 9.8 | 2.5 | 4.4 | 4.8 | 2.9 | 3.6 | 7.8 | 4.6 | 6.1 | |
| 설비투자(국민계정) | 34.3 | -7.9 | -10.8 | -15.4 | | | | | | |
| 설비투자추계 | 30.1 | -6.3 | -4.7 | -12.2 | -10.4 | -19.4 | -6.4 | -4.4 | -5.4 | |
| 건설투자(국민계정) | -4.1 | 1.4 | 0.9 | 8.3 | | | | | | |
| 건설기성액 | -3.1 | 1.6 | -0.4 | 7.9 | -8.3 | 8.7 | 23.5 | 7.9 | 15.6 | |
| 수출(통관기준) | 19.9 | 2.1 | -11.6 | -19.7 | -21.1 | -20.4 | -17.6 | -20.1 | -18.8 | -16.3 |
| 실업률 | 4.1 | 4.8 | 3.5 | 3.3 | 3.7 | 3.6 | 3.3 | 3.5 | 3.4 | |
| 소비자물가 | 4.3 | 4.2 | 5.3 | 4.3 | 5.0 | 4.7 | 3.2 | 3.6 | 3.5 | 3.4 |

자료 : 한국은행, 통계청, 산자부

2. 종합평가

그동안의 시행된 재정·금융정책의 효과로 추가적인 경기악화 가능성은 적지만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는 저성장기조 불가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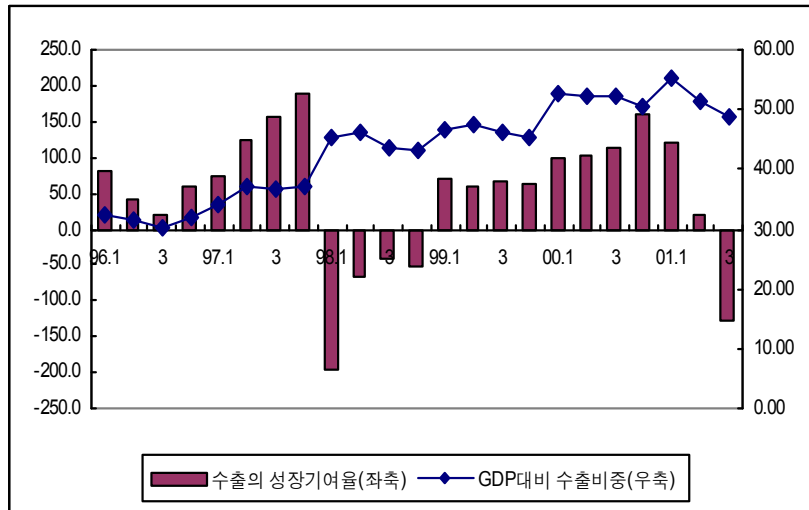
- 현재 경기의 개선 움직임은 그동안의 금리인하와 9월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올해 수차례에 걸친 금리인하로 개인 저축률이 하락했으며 이것이 민간소비의 견조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주 요인으로 판단됨.
 - 9월 이후 1, 2차 추경편성, 재정자금 집행 점검 및 독려 등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3/4분기 중 정부소비의 GDP성장기여율이 전체 GDP 증가액의 51.3%를 차지
 - * 1~8월 중 16.3조원(GDP대비 2.9%)이었던 통합재정수지 흑자규모가 1~9월중에는 10.4조원(GDP대비 1.9%)으로 축소되어 한달 사이에 약 6조원 감소
- 따라서 대외여건의 불투명성이 지속되고 GDP에 대한 수출의 비중이 50%에 이르는 우리의 현실을 감안할 때, 정책효과에 의해 받쳐지고 있는 내수중심 성장세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음.
- 이에 따라 경기가 더 이상 악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미국 경제회복이 가시화되어 수출이 회복될 때까지는 지금과 같은 저성장기조는 지속될 전망

II. 국내경기전망

1. 경제성장률

- 우리의 주요 수출시장인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기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발생한 미테러사태와 아프리카전쟁으로 인한 큰 폭의 수출감소세가 현 경기부진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
 - 우리 경제는 97년 외환위기 이후 환율의 절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수출의존도가 96년 35%에서 2000년에는 50%이상 크게 높아졌음.
 - 그러나 지난 해 4/4분기 이후 시작된 수출둔화가 올 3월 이후 감소세로 반전되었고 3/4분기 중에는 감소폭이 20% 가까이 확대. 이에 따라 수출의 성장기여도가 3/4분기에는 큰 폭의 감소세를 보임.

<그림 1> GDP대비 수출비중과 수출기여도 추이



- 4/4분기에 들어와서도 수출부진이 지속되고 있어 올 4/4분기에도 저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지난 해 같은 기간 성장률 둔화에 따른 기술적 반등 및 재정지출 효과에 힘입어 3/4분기보다는 높은 2.5%의 성장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어서 연간 성장률은 지난 해(8.8%)의 1/3수준인 2.6%에 그칠 전망이다.

- 따라서 최근 개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의 가시적인 회복시점과 속도는 경기침체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수출의 회복에 달려 있으며 이는 세계경제 특히 미국경제의 회복과 직결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의 경기전망에 관련하여 두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함. 첫 번째는 올 2/4분기에 시작된 미국의 불경기가 3분기 정도 지속된 뒤 내년 1/4분기부터는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여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경우와 두 번째는 불경기 기간이 3분기 이상 장기화되어 회복시점이 내년 하반기 이후로 지연되고 회복세도 미약할 경우
 - 최근 미국경제의 움직임은 미국경제가 내년 중반쯤에 가시적인 회복기에 진입할 것이라는 첫 번째 시나리오에 설득력을 더욱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아프리카전쟁의 조기종결 가능성, 반도체가격 반등 조짐과 IT산업에서의 과잉설비 해소 조짐, 유가하락 등 경기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이 예상되는 가운데

- 미시간 소비심리지수, 내구재 주문, 주택경기 양호 등 최근 발표된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들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주식시장은 이러한 기대를 반영하여 급등세를 보이는 등 경기의 조기반등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또한 미국의 월간경제동향조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 인디케이터가 경제학자 5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서베이에서 조사 대상자의 약 71%가 4월 이전에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함으로써 미국경제의 회복세가 더 앞당겨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이에 따라 경제성장률은 수출부진이 이어지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3.0%의 저성장기조에 머무를 전망이나 하반기 이후에는 수출 및 내수가 점진적으로 회복되면서 4%대의 성장률을 보이며 2002년 연간으로는 3.6%의 성장률을 보일 전망
 - 민간소비는 저금리 기조와 가계신용 확대에 따른 차입여건 개선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년 월드컵 특수,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어 경제성장률을 상회하는 4.0%내외의 증가율을 나타낼 것으로 보임.
 - 설비투자는 아프칸전쟁, 경기침체 등 국내의 경영환경 불투명성 등으로 상당기간 투자심리 위축이 이어질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설비투자의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하반기 중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회복세가 기대되나 신규투자보다는 연구개발 및 개보수 위주의 투자 중심의 보수적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연간 설비투자 증가율은 1%정도에 그칠 전망
 - 건설투자는 월드컵 특수 및 두 차례의 선거, 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책의 영향으로 공공부문 투자를 중심으로 연간 4%의 증가율이 예상됨.

2. 경상수지

- 수출은 세계경제의 침체국면 지속과 미테러사태의 영향으로 내년 상반기까지는 마이너스 증가율이 이어질 전망

- 세계경제는 70년대 초 1차 석유파동 이후 25년만에 미국, 일본, 유럽의 동시불황 직면
- 미국경제의 회복이 시작되어도 교역량 증가에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임.
- 하반기중에는 미국경제 회복과 동조하면서 플러스 증가율을 나타낼 전망. 그러나 상반기 마이너스 증가율의 영향으로 연간 전체로는 1%내외에 그칠 전망
 - 최근 반도체가격이 점진적으로 오르고 있어 향후 우리 반도체 분야의 수출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수입은 내년 중에도 점진적인 경기회복세에 힘입어 소비 및 설비투자수요가 꾸준히 살아나면서 수출보다 더욱 빠른 회복세가 예상되어 연간 3%대의 증가율을 보일 전망
 - 특히 올 해 큰 폭으로 떨어진 자본재 수입이 내년 하반기 이후 가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수입증가세가 수출증가율을 상회할 전망에 따라 내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의 흑자폭은 축소될 전망이나 흑자기조는 유지될 전망
 - 지난해 각각 114억 달러와 169억 달러 흑자를 보였던 경상수지와 상품수지는 금년 96억 달러와 152억 달러로 그리고 내년에는 54억 달러와 111억 달러로 점차 축소될 전망

3. 물가

- 향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경기부진의 지속으로 수요측면에서의 상승압력이 크지 않은데다 환율, 원자재가격 등 비용측면에서의 상승요인들이 안정되고 상반기 중 물가상승의 주요인이었던 공공요금인상도 정부의 노력으로 억제되면서 점차 하향추세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금년 3/4분기 중 4%대로 낮아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4분기중에는 3%대로 더욱 낮아지면서 연간 전체로는 4.3%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중에도 우리경제가 3%대의 성장률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전반적인 물가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전망
 - 특히 9.11 사태 여파로 우려되었던 유가는 지금까지 사태진전을 비추어 보면 급등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EIA 등 주요 국제유가 전망기관들도 내년 유가를 금년보다 낮은 20\$내외로 예측
- 그러나 물가상승압력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중에는 공공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에 대한 유인이 상존함에 따라 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대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4. 금리 및 환율

- 내년에는 물가안정 및 채권수급면에서 금리가 하락할 요인이 있으나 경기회복이 기대되는 내년 하반기부터는 자금수요부진 현상이 완화되면서 금리도 소폭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 내년 회사채 만기도래 규모가 올해(45조8천억원)의 68% 수준인 31조3천억원으로 감소할 전망
- 내년 원·달러환율은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자금유입 등 수급면에서 원화강세요인이 지속될 가능성이 커 소폭의 원화강세 기조가 이어질 전망

<표 2> 2002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달러(국제수지부문)

| | 2000년 | 2001년 | | 2002년 | | | | |
|-----------------|--------|--------|--------|--------|--------|--------|--------|--------|
| | 연간 | 4/4 | 연간 | 1/4 | 2/4 | 3/4 | 4/4 | 연간 |
| 국내 총생산 | 8.8 | 2.5 | 2.6 | 2.8 | 3.2 | 3.8 | 4.6 | 3.6 |
| (제조업) | 15.3 | 1.8 | 1.6 | 2.5 | 3.5 | 4.3 | 6.3 | 4.2 |
| 총소비 | 6.2 | 4.2 | 2.6 | 3.6 | 3.5 | 3.4 | 3.6 | 3.5 |
| 민간소비 | 7.1 | 4.6 | 3.0 | 3.8 | 3.7 | 3.8 | 4.2 | 3.9 |
| 고정자본형성 | 11.0 | -3.5 | -3.7 | -1.7 | 1.3 | 4.7 | 5.9 | 2.7 |
| 설비투자 | 34.1 | -14.3 | -12.0 | -7.4 | -2.7 | 6.1 | 9.0 | 0.8 |
| 건설투자 | -4.0 | 4.1 | 3.8 | 4.7 | 4.5 | 3.8 | 4.0 | 4.2 |
| 총수출 | 21.5 | -3.6 | 0.1 | -1.2 | 0.4 | 4.6 | 4.9 | 2.2 |
| 총수입 | 19.9 | -4.2 | -4.5 | -1.6 | 3.3 | 6.1 | 10.0 | 4.5 |
| 생산자 물가 | 2.0 | 1.0 | 2.2 | 0.9 | 0.8 | 1.3 | 1.8 | 1.2 |
| 소비자 물가 | 2.2 | 3.3 | 4.3 | 2.9 | 2.6 | 3.0 | 3.5 | 3.0 |
| 경상수지 | 114.0 | 18.6 | 95.6 | 21.8 | 13.9 | 9.9 | 8.1 | 53.6 |
| 상품수지 | 168.7 | 36.4 | 151.9 | 31.6 | 26.1 | 27.6 | 25.9 | 111.0 |
| 수출 | 1759.5 | 371.7 | 1528.1 | 374.5 | 380.5 | 389.0 | 399.5 | 1543.6 |
| 증가율 (%) | 21.2 | -17.2 | -13.1 | -7.9 | -1.7 | 7.2 | 7.5 | 1.0 |
| 수입 | 1590.8 | 335.3 | 1376.2 | 343.0 | 354.5 | 361.5 | 373.7 | 1432.6 |
| 증가율 (%) | 36.2 | -17.4 | -13.5 | -7.8 | 5.5 | 8.6 | 11.5 | 4.1 |
| 서비스+소득+이전수지 | -54.7 | -17.8 | -56.2 | -9.8 | -12.2 | -17.7 | -17.8 | -57.4 |
| 원화 환율,기말 Won/\$ | 1259.7 | 1265.0 | 1265.0 | 1256.2 | 1247.5 | 1238.8 | 1230.0 | 1230.0 |
| 엔화 환율,기말 Yen/\$ | 114.4 | 125.0 | 125.0 | 126.2 | 127.5 | 128.8 | 130.0 | 130.0 |
| M3증가율 (평균,%) | 5.7 | 9.1 | 9.0 | 9.1 | 8.9 | 8.5 | 8.3 | 8.7 |
| 회사채수익률(평균,연%) | 9.4 | 7.2 | 7.2 | 7.4 | 7.6 | 7.9 | 8.1 | 7.8 |

Ⅲ. 정책과제

1. 현 거시경제정책 평가

- 2001년 내내 정책당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정책기조를 주창하였으나 실제정책의 집행에 있어 미진했음. 이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질 않을 전망

- 기본적으로 그 동안 있는 미온적인 재정정책 추진과 재정정책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며 금리인하에 미온적인 통화정책과의 부조화가 지속됐음. 이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이 국내경기 부양에 크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됨.
- 재정정책당국은 경기활성화를 위해 제한적인 부양책을 쓰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재정정책이 긴축기조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음. 당국은 금년 상반기 중 예산 조기집행을 누차 강조하였으나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음. 금년 1~9월의 통합재정수지의 중앙정부 세입세출도 1.7조원 흑자를 시현하고 있음.
- 통화당국은 미래 물가추세보다 과거 물가추세에 얽매어 통화정책을 경직하게 운영하여 왔음. 負의 output gap(즉, 실제 GDP와 잠재 GDP와의 차이)가 계속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금리인하에 미온적이어서 총수요 진작에 기여하지 못했음.

2. 거시경제정책 과제

- 정책당국은 내년 크게 다른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비하여야 함. 첫 번째는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되거나 조기 회복이 있더라도 강도가 약하여 우리경기회복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빠르고 강한 회복이 우리경제회복을 앞당기는 경우. 현 시점에서 두 가지 실현 가능성이 비슷하다고 판단됨.

A. 미국경기 회복 지연 시나리오

- 내년 중 미국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는 경우 우리의 거시정책은 경기부양 기조를 유지해야함.
 - 전술한 바와 같이 수출이 우리 국민총생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외환이기 이후 크게 높아졌기 때문에 수출 회복이 없이는 지속가능한 우리경제의 회복이 어려움. 따라서 미국경제로 요약되는 우리 주요수출시장의 회복이 늦어지면 우리의 수출 부진이 지속될 것임.
 - 이런 상황에서 내수의 추가 위축을 막는 것이 정책운영의 초점이 되어야함. 그동안 꾸준한 추세를 보여온 소비와 재정지출에 힘입어 호전기미를 보이고 있는

건설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함.

- 정책수단과 관련해서는 통화, 재정지출, 감세 등 모든 수단이 공통적으로 동원되어야함.
- 負의 output gap이 나타나고 있는 한 추가 금리인하의 여지가 있음. 특히 물가의 하향안정화 추세가 점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에 따라 금리인하가 총수요 급등과 물가 불안으로 이어질 확률이 낮음.
-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올해 말에 집행되는 추경의 효과가 내년 초까지 영향을 끼칠 전망. 이에 덧붙여 내년 상반기 중 예산의 명실상부한 조기 집행이 이루어져야함. 우리의 수출 회복이 내년 중에 이루어진다면 추가적인 예산편성은 필요치 않을 전망
- 근래에 감세정책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원론적인 입장을 떠나 실질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만약 올해와 같은 재정정책의 난맥상--팽창기 조라는 당국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세입이 세출을 초과했음--이 계속된다면 감세가 보다 확실하게 재정기조를 반영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음. 따라서 감세정책도 고려되어야함.

B. 미국경기 조기회복 시나리오

- 내년 초에 미국경제가 강한 회복세를 보이는 경우 우리의 거시정책은 안정기조로 전환해야함.
 -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의 일부 경제지표는 빠른 회복을 시사하고 있음. 미국회복세가 빨라질 경우 우리 수출회복이 뒤따를 것이고 이는 국내 투자 및 생산활동의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이런 상황에서 내수가 급등세를 보이는 것을 경계하여야 함. 경기의 빠른 회복이 진행된다면 내년에 있을 선거 및 월드컵 경기 등의 요인도 소비를 크게 부추겨 총수요가 과열하는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이 큼. 따라서 거시정책은 안정 우선으로 기조전환이 필요함.

- 먼저 통화정책과 관련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는 특별한 물가상승압력이 예상되지 않음. 따라서 지금 수준의 금리를 당분간 유지하면서 물가추이를 예의 주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만약 총수요 급등조짐이 뚜렷해질 경우 금리의 상향조정을 고려하여야 함.
- 2002년 말 대선을 앞두고 금통위가 금리인상을 단행할 수 있겠는가가 그 동안 쉽게 언급되어오던 중앙은행과 통화정책의 독립정도를 가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임.
- 재정정책과 관련하여 이 시나리오하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치 않을 전망. 특히 년초에 명실상부한 예산조기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재정의 역할은 충분할 것으로 생각됨.
- 경기부양을 위한 감세조치는 불필요함. 하지만 조세체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세제에 대한 손질은 계속되어야 할 것임.
- 아울러 정부는 올해에 나타난 재정정책의 난맥상의 원인에 대한 심각한 대책마련에 힘을 기울여야함. 현행 제도는 예산편성과 집행, 세입·세출 총괄 등의 여러 면에서 상당한 경직성을 노정하고 있음. 이런 제도의 경직성을 타파하지 못한다면 향후 재정정책의 시의적절한 거시경제조절 역할을 기대하기 불가능함.

3. 기업정책 과제

- 한편, 경기와 관련 없이 기업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의 정비 및 규제철폐노력은 지속되어야함.
- 기업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함께 글로벌경제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정비와 제도개선에 노력해야 함.
 - 정부에 의한 직접적 규율에서 이해관계자나 시장에 의한 규율로 전환해야 함.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인 정책으로부터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간의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기업정책을 수행해야 함.

- 획일적인 부채비율이나 사외이사비율, 기업의 신규투자를 막는 출자총액 규제, 유효성이 적은 현행 정리해고제, M&A나 해외매각에서의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화 등의 규제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함.
- 또한 글로벌 경제시대에 부합하는 기업의 재무정보, 경영책임 강화 등과 같이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다 강화해야 함.

IV. 기업에의 시사점

1. 국내거시경제 환경의 불투명성 증가

- 최근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함에 따라 현 정부가 계획하는 각종 정책에 대한 국회 동의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따라서 내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현 정부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시됨.
 - 침체된 국내경기의 진작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여, 야 모두 정치적인 득실에 얽매어 판단할 가능성이 높음. 이런 상황은 필요한 정책의 강도를 희석시키고 적기시행을 어렵게 함으로써 정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임.
 - 아울러 작금에 나타나고 있는 미온적인 재정정책 추진과 재정정책의 역할 증대를 요구하며 금리인하에 미온적인 통화정책과의 부조화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거시경제정책이 국내경기 부양에 크게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됨.
-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빠르게 증가한 수출의존도의 결과로 우리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도가 높아졌음. 따라서 가시적인 수출신장이 국내경기 회복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 하지만 수출의 가시적 증가는 우리 주요 수출시장의 회복이 선행되어야함.

2. 투자확장 시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 상기한 바와 같이 우리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경기회복이 선행되어야 함. 따라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확장 시점은 자연스럽게 미국경기회복시기에 맞추어져야 함.
- 두 가지 중 어느 시나리오가 현실과 가깝게 나타나더라도 우리 경제의 회복은 미국 회복을 후행할 것임. 따라서 그 동안 전개되고 있는 수출부진의 예외였던 업종을 제외한 우리 기업들은 경기회복에 대비한 투자 증대 및 사업확장을 미국경기의 회복세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때로 잡는 것이 적당함.

3. 금융시장 여건: 내년 상반기 유상증자 기회

- 지금의 상황은 우량기업의 경우 여유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비우량기업들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전반적인 자금시장 사정은 여유가 있는 상황으로 은행권 구조조정 지연 등에 따라 자금 잉여자금의 선순환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임.
- 지금과 같은 여건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 단기에 걸쳐서 기업들의 신규투자가 미미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자금수요가 낮을 것임. 특히 회사채 시장의 경우 비우량기업의 회사채 소화로 진통을 겪고 있으나 우량기업의 회사채가 상대적으로 희소한 상태임. 따라서 2002년 중 경기회복조짐이 있을 때 신규자금수요가 발생하게 되면 우량기업들은 유리한 조건으로 회사채를 발행할 수 있을 것임.
- 은행권에도 잉여자금이 풍부한 상태이지만 구조조정 진전이 기대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 여신활동 재개를 기대하기 힘들. 특히 그 동안 등한 시켰던 소매금융 부문에 대한 공격적인 확장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
- 내년 중 회복기미가 가시화되면 주식시장 여건이 개선될 전망. 특히 하이닉스 등 잘 알려진 문제들이 처리됨으로 해서 주식시장을 둘러싼 큰 불확실성이 제거되었음. 이는 향후 한국 주식시장의 호조를 점칠 수 있게 해주는 요인임.
- 기업의 입장에서 주식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을 계획할 필요가 있음.

- 비록 회사채 시장의 여건이 우호적이지만 기업들의 부채비율에 대한 시장과 정부의 경계심이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회사채 발행에 의한 자금조달에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주식시장이 호전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유상증자 전략이 필요. 하반기에 회복조짐이 뚜렷해져 자금수요가 증가하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하면 주식시장 여건이 상반기 보다 상대적으로 나빠질 수 있음. 따라서 내년 상반기가 주식시장을 이용한 증자기회로 적합할 전망.

제2회 한경연 포럼 : 제2주제

2002년도 사업계획 방향

이 주 선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Tel : 3771-0038, e-mail : zrhee@keri.org

1. 환경변화

<국내환경>

- ▶ 현 정부의 개입주의적 개혁에 대한 반작용과 레임덕 현상의 심화
- ▶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대통령 선거 등 정치일정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의 고조와 경제정책의 혼선 가능성
- ▶ 수출 및 내수부진의 지속으로 인한 경기침체의 장기화

<대외환경>

- ▶ 테러 이후 국제정치 정세의 변화와 경제·경영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 ▶ 중국·대만의 WTO 가입과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으로 인한 세계경제의 격동 가능성
- ▶ 뉴라운드(도하라운드)와 지역주의 확산 및 FTA의 증가로 인한 경쟁의 심화
- ▶ 세계경제의 동반불황과 다발적 금융위기 가능성

2. 연구의 초점

- 1) 기업경쟁력 강화
- 2) 법치가 가능한 법·제도 인프라 구축
- 3) 자유시장경제이념의 전파
- 4) 대외개방과 지역협력의 강화

3. 연구센터별 사업계획 방향

<기업연구센터>

1) 연구방향

- 지속적인 구조조정에 필요한 경영정보의 제공
-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법적·제도적 인프라의 개선방안 제시
- 경영성과와 경영특성간 인과관계 규명을 통한 성장동인의 파악
- 지속가능한(sustainable) 노사관계 및 노동·복지제도의 정착

2) 연구·사업계획

-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영특성과 경영성과
- 회계감사시장의 시장구조와 감사의 적정성 연구
- 민간 R&D에 대한 정부지원의 효과분석
- 기업의 생존기간 결정요인 분석

- 민간기업과 공기업의 효율성 격차 원인 분석
- 일자리 창출을 전제한 노동복지모델의 모색
- 기업근속 보상과 노동이동과의 연계관계 분석
- KERI CEO REPORT

<법경제연구센터>

1) 연구방향

- 기업하기 좋은 법·제도적 여건 조성
- 시장경제체제 구축의 장애요인 제거
- 자유시장경제이념의 전파와 확산
- 법치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적 투명성 제고

2) 연구·사업계획

- 시장경제질서로서의 공정거래법(경쟁법) 개혁 방안
- 법체계의 차이가 정부의 경제운용에 미치는 영향분석
- 기업집단구조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 한국기업의 진입과 퇴출 결정요인 분석
- 시장경제체제에 적합한 부패방지시스템 구축 방안
- 내부거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 디지털시대의 경쟁정책과 지적재산권
- 산업별 규제지도 작성
- KERI LSME(Lecture Series for Market Economy)
- 제도연구회 개최와 제도연구 Series 발간
- 『규제연구』 발간(2회)

<금융·재정연구센터>

1) 연구방향

- 직·간접 금융시장 및 금융제도 변화 대응방안 모색
- 기업금융환경 정비
- 기업관련 세제의 합리화

2) 연구·사업계획

- e-금융의 확산과 금융제도의 재정립 방안
- 전자무역결제시스템에 대한 연구
- 기업자본조달구조 변화와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법인세제의 개선방안
- 자본이득과세의 개선방안
- 주식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기업금융규제의 합리성 평가

<거시경제연구센터>

1) 연구방향

- 경제전망의 정확성과 신속성 제고
- 거시경제정책의 실효성 증대 방안 강구
- 대외개방과 지역협력 증대

2) 연구·사업계획

- 외환위기 이후 대외충격에 따른 한국경제의 변화 모형 추정
- 산업발전을 위한 효율적 산업배치 전략
- 무엇이 한국경제 발전의 동인인가?
- 장기복합불황 방지를 위한 Macro Policy Mix.
- 실질환율에 대한 통화의 장기중립성에 관한 연구
- 동아시아 경제협력과 기업의 역할
- 반덤핑과 미국통상법
-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 KERI Economic Bulletin

<회원서비스센터>

1) 사업방향

- 대 회원서비스 기능 제고
- 회원(기업)요구needs의 수렴 기능 강화
- 연구원 활동의 대 회원홍보 확대

2) 사업계획

- '한경연포럼'의 정례화(월 1회, 연간 10회 개최)
- 회원기업 임직원 네트워크 형성
- 이슈별 연구모임 활성화